

국소 진행성 두경부 암 환자에 대해 FP(5-Fluorouracil/Cisplatin)화학방사선 동시요법

충북의대 내과학교실

김형삼*, 김기석, 배상석, 오석진, 김민욱, 이기형, 김승택

배경: 본 연구는 국소 진행성 두경부암 환자에서 FP화학방사선 동시요법을 실시하여 치료에 따른 반응율, 반응지속기간 및 치료부작용을 검토하고자 시행되었다.

방법: 1996년 7월부터 2001년 4월까지 충북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조직학적으로 진단받은 두경부암 환자에서 국소진행성 병변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FP화학요법(5-FU 1,000mg/m² iv D1-5, cisplatin 60mg/m² iv D1)을 매 3주마다 반복하여 3회 시행하였고, 방사선치료는 화학치료와 동시에 시작하여 원발 병소의 위치와 병기에 따라 8주동안 7,000~7,500cGy를 조사하였다.

결과: 총 30명의 환자가 본연구에 포함되어 28명에서 평가가 가능하였다. 이중 15예(54%)에서 완전반응이 관찰되었고, 10예(39%)에서 부분반응이 관찰되어 총 반응율은 93%였다. 전체환자의 반응지속기간은 1.6+~59+개월로 중앙값은 38개월 이었다. 완전반응을 보였던 환자들의 무병생존기간은 1.6+~55+개월로 중앙값은 38개월 이었다. Grade 3이상의 심각한 혈액학적 부작용은 5%이하에서 관찰되었다. 전체환자의 생존기간은 1.5~60+개월로 중앙값은 아직 도달되지 않았으며 환자들의 3년생존율은 62%였다. 임상적 특징에 따른 생존율의 비교에서 연령에 따른 생존율에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화학요법의 횟수면에선 3회의 화학요법 시행시 2년 생존율이 91%, 2회 시행시 75%, 1회의 화학요법 시행때는 60%로 통계적 유의성(P<0.05)이 있었고, 방사선량에 따라 7,000cGy이하와 7,000cGy이상에서 2년 생존율이 각각 50%, 89%로 역시 통계적 유의성(P<0.01)이 있었다.

고찰: 본 연구에서 화학방사선 동시요법의 높은 반응율과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약 62%이상의 장기 생존율이 관찰되어 수술요법을 받은 역사적 대조군과 대등한 결과를 나타냈다.

선행 항암 화학 요법을 시행 받은 국소 진행성 두경부 암 환자의 예후 분석

조요한, 홍세미*, 김수지*, 이세훈, 김지현, 김도연, 우홍균*, 김태유, 성명훈**, 허대석, 방영주, 김광현**, 김노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치료 방사선과학교실*, 이비인후과학교실**

배경: 두경부 암에서의 전통적인 국소적 치료인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는 이후의 재발로 인하여 낮은 장기 생존율을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하여 선행 항암 화학 요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어 왔다. 저자들은 지난 10여년간 선행 항암 화학 요법을 시행 받은 국소 진행성 두경부 암 환자의 경과 및 예후를 분석해 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1984년 6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서울대병원 내과에서 치료한 두경부 암 환자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중 선행 항암 화학 요법을 받은 환자를 따로 분류하여 성별, 나이, 종양의 부위, 조직형, 병기, 활동도, 항암제에 대한 반응, 수술/방사선 치료, 재발 여부, 무병 생존기간, 전체 생존기간을 분석하였다.

결과: 선행 항암 요법을 받은 두경부 암 환자는 297명이었고 남자가 232명(78.1%), 여자가 65명(21.9%)이었다. 조직학적으로 편평 상피 세포암이 208명(70%)이었고 병기는 4기가 대부분이었다.(81.5%) 부위별로는 비인두암 124명(41.8%), 비강암 27명(9.1%), 구강암 51명(17.2%), 구인두암 31명(10.4%), 하인두암 42명(14.1%), 후두암 22명(7.4%)이었다. 항암 요법에 대한 반응은 286명에서 평가가 가능하였고 전체적으로 완전 관해 21명(7.3%), 부분 관해 236명(82.8%)을 보여 반응률은 90.1%였다. 부위별 반응률은 비인두암 90.1%, 후두암 89.4%, 구인두암 87.1%, 구강암 85.7%, 하인두암 82.9%, 비강암 56%로 비강암이 가장 낮았다.(p=0.055) 추적 관찰 기간 중 128예(43.1%)의 재발이 관찰되었고 그 중 원격 전이는 21예(17.8%)였다. 전체 환자의 5년 무병 생존율은 39.2%, 5년 생존율은 69.7% 이었고, 10년 무병 생존율은 34.5%, 10년 생존율이 57.7%로 나타났다. 다변수 분석에 의하면 무병 생존기간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부위, 병기, 활동도가 있었고 전체 생존 기간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선행 항암 요법에 대한 반응과 조직형이었다.

결론: 두경부 암은 선행 복합 항암 화학 요법에 높은 반응률을 보였으며 반응 정도는 생존 기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였다. 향후, 주요 치료 실패 원인인 국소 재발을 줄이기 위한 치료 전략이 더욱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